고대 이집트 사원 유적서 불상 발견 화제

베레니케 사원 유적지서
71cm석조불…연꽃조각도
고대 인도와의 교역 증거
이집트 현지 조성 가능도

박영빈 객원기자

이집트 홍해 해안가의 고대도시 베레니케의 사원 유적지에서 석조 여래입상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4월 27일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는 "초기 로마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이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스카이 뉴스 아라비아', 'ABC 뉴스' 등의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미국-폴란드 공동 고고학 발굴단은 고대 이집트의 항구도시였던 베레니케의 이시스 사원 유적에서 초기 로마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을 발굴했다. 이집트 관광유물부에 따르면, 공동 고고학 발굴단은 1994년부터 발굴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 박물관 측은 "불상이 발견된 이시스 사원은 고대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에게 봉헌된 사원으로 당시 이시스 여신 외에도 베레니케를 오가는 많은 외국인들의 신들을 위한 공간도 공유하던 복합적인 신앙의 거점"이라며 불상이 이시스 사원에서 발굴된 경위를 추정했다.

고야즈다 단장은 "불상은 인도에서 온 개인이나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사원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발굴된 불상은 입상의 형태로 높이는 71cm 가량의 석조불이다. 몸의 우측이 일부 결손돼 있으나 왼손에는 가사자락을 쥐고 있는 형태이며, 아래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조각돼 있다. 불상의 머리 주변에는 그의 태양 광선이 뻗는 형태의 두광이 있으며 나발은 곱슬머리의 형태로 조성됐다.

마리우스 고야즈다 폴란드 측 발굴단장은 "이시스 사원 발굴 도중 산스크리트어로 된 비문도 별도로 발견됐다.


베레니케 사원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
사진출처=이집트 박물관

내용에 따르면 3세기 중반의 로마황제 필리푸스 아라부스의 치세라고 쓰여 있으나 비문과 불상의 조성연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불상의 연도가 훨씬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사원에서 그리스어로 된 비문들도 발견됐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서기 1세기까지 올라간다"면서 "또한 2세기 인도의 사타바하나 왕조의 동전 2개도 발견됐다"며 불상의 정확한 조성연도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스타파 와지리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베레니케에서 발굴 작업 중인 미국-폴란드 공동발굴단의 발굴에서 로마시대 동안 이집트와 인도 간 무역관계가 있었다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대 사서에서 인도인들이 베레니케에서 향신료와 상아, 보석과 같은 교역품을 거래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불상의 발굴은 그 기록들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자말 알사마타위 중부 이집트 유물 국장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상과 산스크리트어 비문 그리고 인도 동전의 발견은 당시 이집트에 왔던 인도인들이 고대 이집트 문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600년 불교사원을 시크교 유적이라니…

인도 시크교도 단체 주장에 불교 단체와 분쟁

인도의 한 불교 사원을 둘러싸고 불교와 시크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시크교가 해당 사원이 시크교 사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월 29일(현지시간) 더힌두(The hindu) 보도에 따르면, 소수민족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는 지난달 24일 "메추카에 위치한 구루 나낙 데브(Guru Nanak Dev) 관련 시크교 유적지가 불교 사원으로 개조됐다"는 시로마니 구르드와라 파르반닥 위원회(the Shiromani Gurdwara Parbandhak Committee, SGPC) 주장과 관련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 정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발단은 페마 칸두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었다. 페마 칸두 주장관은 지난달 8일 메추카 인근 불교 순례지인 네페마 셀푸 드룹캉을 방문한 후 SNS에 "티베트 불교의 구루 파드마삼바바가 명상했던 불교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축원을 올렸다"고 적었다.

SGPC는 해당 사원이 당초 시크교의 사원인 구르드와라였으나 불교 사원으로 개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페마 칸두 주장관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지역 불교 단체인 네낭 문화개발협회(The Neh-Nang Cultural Development Society, NNCDS)는 "SGPC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해당 사원은 구루 파드마삼바바가 명상했던 동굴에서 기원한다. 이 동굴은 600년 이상 메추카에 거주하는 불교 공동체의 순례지였다"고 반박했다.


구루 파드마삼바바가 명상했던 곳으로 알려진 불교 순례지. 사진출처=더힌두

이어 이들은 "1987년 시크교도 병사들이 불상을 철거하고 시크교 숭배물을 가져다 놓았다"며 "당시 불교도들의 유일한 잘못은 시크교도 병사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쓴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7년 이전까지 이 순례지에서 시크교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시크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불교 순례지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민족위원회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5월 해당 지역과 사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전쟁 중 공출된 범종 82년 만의 귀향

금속 공출된 것 환지본처
17세기 주조…400kg상당

2차 세계대전 중 총탄과 같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공출된 범종이 82년 만에 환지본처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난을 피하여 원형 그대로 돌아온 기적적인 이야기를 지난 4월 28일 일본의 '니가타 방송'이 특별보도했다,

니가타현(新潟県) 이즈모사키쵸(出雲崎町)에 소재한 만인지(万因寺). 400여년 전 창건돼 오랫동안 지역 불자들의 중심점이 되어온 사찰이다.

만인지에는 17세기경 주조된 범종 한 구가 소장돼 있었다. 높이 약 130cm, 무게 약 400kg의 범종은 당시 신자들의 보시로 조성된 것. 그러나 이 종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일본정부가 내린 금속 공출령에 의해 압수당했다.

만인지의 주지 다카하시 소쿠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길 바라며 울리는 범종이 전쟁에 희생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82년 만에 귀향한 만인지의 범종. 사진출처=니가타 방송 뉴스화면 캡쳐

용광로에 녹아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인지의 범종은 1993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소쿠엔 스님은 "이시카와현에 소재한 사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절에 만인지의 범종이 있다는 소식이었다"며 뜻밖의 발견을 말했다.

만인지에서 300km나 떨어진 이시카와현(石川県)의 이가쿠지(以覚寺)에서 온 편지에는 만인지의 범종이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었다. 공출령으로 압수당한 일본 전국의 범종들은 도쿄의 철공소로 반입됐고, 종전 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공장 측은 종을 쌀과 교환했다. 그 중 공장과 인연이 있었던 이카쿠지 역시 종을 공출당한 것을 공장 측이 기부한 것이 바로 만인지의 범종이었다.

이카쿠지 측은 "기부 받을 당시에는 어디에서 온 어떤 범종인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후 1991년, 태풍으로 종루가 무너져 범종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만인지의 범종인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종의 내력이 밝혀지고서 만인지의 주지스님이 이가쿠지를 방문하여 이야기한 끝에 범종을 만인지로 환지본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동의 문제를 비롯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과정에서 과정이 길어졌고, 드디어 4월 26일 범종이 82년 만에 귀향하게 됐다.

양 사찰의 주지스님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가쿠지의 종루에서 범종이 내려졌다. 이가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오랫동안 소리를 들어온 범종이다보니, 원래 자리라곤하나 떠나보내기 섭섭하다"며 종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만인지 측은 종을 돌려받는 대신, 새로운 종을 주조하여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만인지의 법당 한 켠에 만들어진 거치대에 다시 걸린 범종은 바라보며 소쿠엔 스님은 "뭐라 말이 니오지 않는다. 그저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전쟁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평화의 소리를 울리길 바란다"며 범종을 되찾은 소감을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사찰 '무지개 깃발' 불 탄 채 발견

지역 경찰, '증오범죄' 판단
주지 "불교기는 비차별 상징"

미국 캘리포니아 한 사찰에서 무지개 깃발이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월 28일(현지시간) ABC7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지난달 25일 무지개 깃발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무지개 깃발은 전 세계 모든 불교 종파의 연대와 우애의 상징으로, '불교기'로 통용되고 있다. 또 성소수자(LGBT) 운동의 깃발도 무지개색으로, 인종·성·성적 취향 등에서의 평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전날 밤 7시께 불교기에 불이 붙었다. 인근 주민인 목격자는 화재 발견 직후 호스를 이용해 불을 껐으나, 누가 불을 낸지 보지는 못했다고 알려진다.

사원의 주지인 그레고리 깁스 스님은 "직접 손으로 칠한 깃발이 수년 동안 사찰에 전시돼 왔다"며 "2주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에 대해 불평한 적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인 4월 6일 한 남자가 사찰에 방문해 깃발에 대해 불평하며 깃발을 내리길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스님은 깃발을 내리길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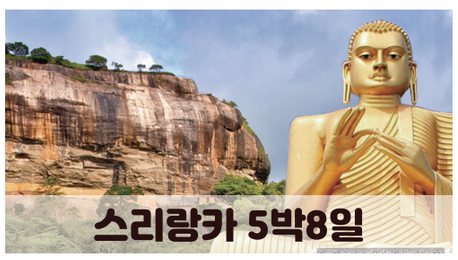
무지개 깃발이 걸려진 패서디나 한 불교사원 앞. 사진출처=ABC7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신원 미상의 남성이 사찰 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깁스 스님은 "불교기는 '비차별'에 대한 불교도들의 근본적인 약속"이라며 "불교는 인종과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7대성지 11일
룸비니, 보드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르 등 7대 성지와
타지마할 등 관광까지 포함한 꽉~찬 일정입니다.


바이칼/몽골 5박6일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까지!


스리랑카 5박8일
남방불교의 중심지 스리랑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담불라 동굴사원 등을 순례합니다.


라오스 3박5일
다양한 액티비티의 천국 방비엥,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루앙프라방,
라오스의 중심 비엔티엔까지!


대만 4박5일
대만 최대 불교성지 불광산사와,
법고산사 등 대표 순례지와
야류해양공원, 온천호텔 휴식까지!


동남아
방콕/아유타야 3박5일 화려했던 불교문화가 남겨진 도시
치앙마이 3박5일 고유의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곳
베트남/캄보디아 3박5일 죽림 선종파의 탄생지+신비의 왕코르와트


일본
도쿄/하코네 3박4일
오사카/교토 3박4일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의 대표 도시 도쿄와 오사카, 시코쿠 등 순례를 떠나봅니다.
필수 사찰 포함, 관광, 휴식, 먹거리까지!


중국
무릉도원 장가계 3박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다시 열린 중국 하늘!
세계자연유산, 장가계+원가계+천문산
백두산(서파/북파) 등을 만나봅니다.

출발일, 인원수, 이용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